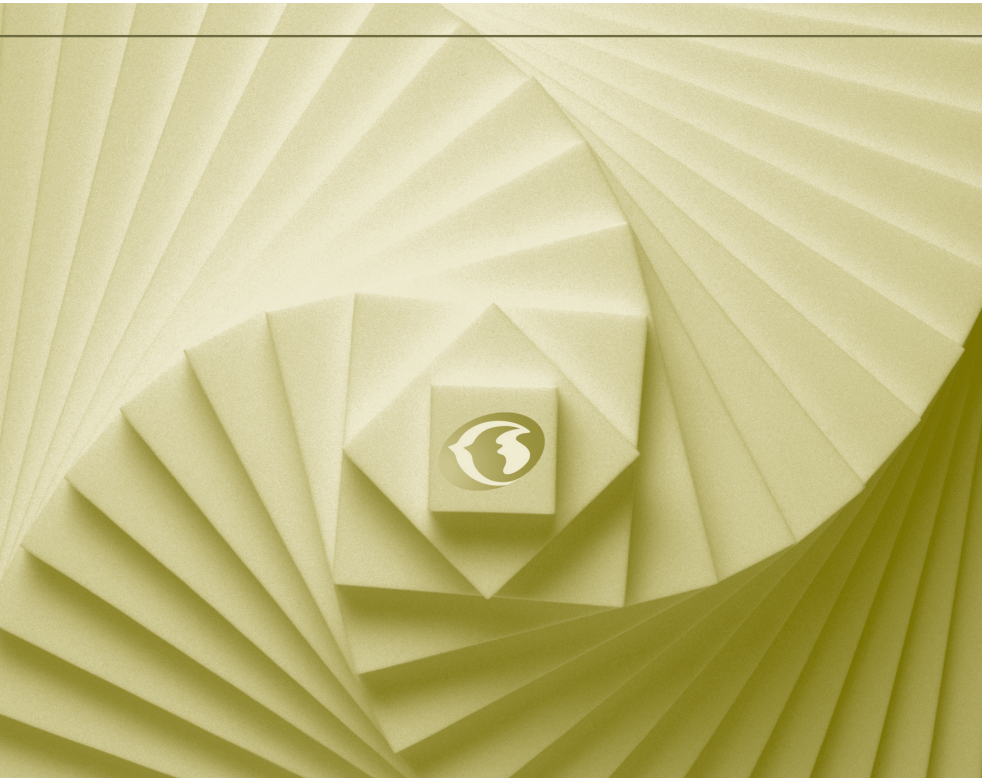




북한방문 길라잡이



북한방문 길라잡이

북한방문 길라잡이

1. 방북 준비 사항	3
1-1. 초청장 발급 및 방북일자 확정	4
1-2. 방북 여장 꾸리기	7
2. 방북 신청절차	11
3. 방북 경로	21
4. 방북 시 유의사항	45

알 아 두 기

- 1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 5
- 2 북한의 공휴일 | 6
- 3 주체년호, 태양절이란? | 6
- 4 북한의 환율, 화폐 | 8
- 5 북한 주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생활용품은? | 10
- 6 사후 신고 | 15
- 7 기념품 사기 | 19
- 8 북한의 행정구역 | 27
- 9 북한에는 어떤 술이 있을까? | 29
- 10 북한에는 어떤 담배가 있는가? | 33
- 11 휴대품을 분실했을 때 | 39
- 12 귀국 시 면세허용 범위는? | 42
- 13 남북한의 주요 생활용어 비교 | 47
- 14 안내원과의 대화는 이렇게! | 50
- 15 통일부 관련 부서 및 연락처 | 55

1.

방북 준비 사항

1. 초청장 발급 및 방북일자 확정
2. 방북 여장 꾸리기

1-1 초청장 발급 및 방북일자 확정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때는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의 초청장이 필요하므로 북측 파트너에게 초청장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초청장 발급을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책, 방문목적, 사진 등)과 여권사본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등을 통해 북측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초청장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초청의사 확인 여부 및 신변안전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등에서 초청장을 발급받고 있으며,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초청장은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

초청장이 나오더라도 방북일정에 대해 전화나 FAX를 통해 북측과 사전에 협의,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일정에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알아두기 1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베이징지역에서 사회문화, 체육분야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남측의 경제지원 유치/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초청 등 사회 문화 체육사업과 관련 행사 마련/연론인이나 학계인사 초청 등과 관련된 대남접촉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대남경협문제는 사실상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주축이 된다.
- 중국 단둥과 베이징에 민경련 대표부가 있으며, 민경련은 여러개의 총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총회사

- 삼천리총회사 : 전자, 중공업, 화학분야 사업담당 등
- 광명성총회사 : 식품, 의약품, 병유리 등을 취급
- 개선총회사 : 농수산물, 한약재, 일반 상품의 교역 등
- 새별총회사 : 피복 등
- 명지총회사 : 광물분야 등

* 민경련 단둥대표부

- 위 치 : 중국 요령성 단둥시 진흥구 11경로 압록강호텔 300호

전 화 : 86-415-213-2587

팩 스 : 86-415-212-4057

* 민경련 베이징대표부

전 화 : 86-10-8483-1251~2

팩 스 : 86-10-8483-1253

*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내각 산하 기구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특히 경제무역시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나진 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 및 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 민족화해협의회

- 1998년 6월 북한이 8. 15 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사회·문화계·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이른바 '온 민족의 접촉 대화와 련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다.



• 초청장 표지, 초청문구, 초청지명단

알아두기 2 북한의 공휴일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생일, 정권·당 창건일 등 주요 국경일, 기념일과 민속명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1972년과 1995년에 각각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였고, 추석(1988년 이후), 음력설(1989년 이후), 정월대보름(2003년 이후) 등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하고 있다.

• 북한의 법정 공휴일 :

설날(양 1.1)·음력설(음 1.1)·정월대보름

(음 1.15)·김정일생일(2.16)·국제부녀절(3.8)·김일성생일(4.15)·인민군창건일(4.25)·국제노동자절(5.1)·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7.27)·조국해방기념일(8.15)·추석(음 8.15)·정권창건일(9.9)·노동당창건일(10.10)·한법절(12.27) 등

• 법정공휴일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절(3.5)·어부절(3.22)·철도절(5.11)·탄부절(7.7) 등의 기념일에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하루 쉰다.

방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북측과 방북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북한의 공휴일이 언제이고, 주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생일(4. 15일) 및 사망일(7. 8일), 김정일 생일(2. 16일), 그리고 정권 창건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북측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 등으로 초청을 잘 하지 않으며, 방북하더라도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3 주체년호, 태양절이란?

김일성 사망 3주년이 되는 1997년에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정무원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채택하였다. 또한 그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6년은 주체 95년이 된다.

* 북한의 환율

북한은 매월 1-2회 무역은행에서 유로화·달러화·엔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을 발표한다.

- 환율의 변동 폭을 극히 제한하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 2002년 8월에 북한당국은 공식환율(1달러 당 1원)과 거래환율(1달러 당 2.2원)이 함께 사용되던 「복수환율제」를 거래환율 하나로 통합한 「단일 환율제」로 전환하고, 대미 달러 환율을 1달러 당 2.2원에서 154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 「공식 환율」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간 협정에 의한 거래나 국가통계 등에 적용되던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분야는 거의 없으며, 「거래환율」은 통상적인 무역이나 외국인 환전 등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한다.

* 북한의 화폐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북한의 화폐는 1974년 12월 화폐 개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4차례 권종이 변화하였다.

1992년 7월부터 지폐 6종(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권)과 주화 5종(1전, 5전, 10전, 50전, 1원권)이 사용되었으나,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종전에 보조단위로 사용되던 '전' 단위가 폐지되고 '원' 단위로 일원화되었다.

이 조치로 경제생활의 단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00원권과 5,000원권, 10,000원권이 발행되었다.



전기용품도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품은 가급적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을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하거나 건전지를 충분히 가지고 가면 좋다. 전기콘센트의 경우 220V를 사용하지만, 11자형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전기 콘센트 등도 있으므로, 11자형 플러그(110V형 플러그)를 준비해 가면 편리하다.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의 휴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경의선으로 방북 시 북측출입사무소에서 필름카메라는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디지털카메라는 반입가능). 고배율의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배율 카메라는 북한의 반출입제한 품목임).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에 사용할 필름(메모리카드)과 테이프를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휴대전화는 북측에서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내에 두고 가도록 한다. 신분증은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할 때에는 방북증명서로 충분하지만,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사업가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 선물 준비

선물은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준비하되, 북측 인원이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상품(만년필, 시계, 전자계산기, 선글라스, 면도기, 핸드백, 스타킹, 화장품, 넥타이, 서류가방, 옷, 양주, 담배, 라이터 등이 적합하다.

고객의 선물이나 받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 된 무늬가 새겨진 옷, 태극기, 성조기 등이 그려져 있거나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물건,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상품 등이 그 예이다. 책자,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중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본다.

알아두기 5 북한 주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생활용품은?

- 「5장」 : 이불장·양복장·책장·찬장·신발장
 - 「7기」 : 수상기(TV)·냉동기(냉장고)·세탁기·선풍기·재봉기·녹음기·사진기
- 「5장 7기」는 고가로 거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들 물품을 모두 갖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일부 계층에 해당되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할 때 가장 많이 구입해 오는 물건은 TV·선풍기·녹음기·사진기 등 가전제품이다. 최근에는 김치냉장고·DVD·CD 재생기 등 첨단 가전제품들의 반입이 여유계층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PC와 피아노도 선호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2.

방북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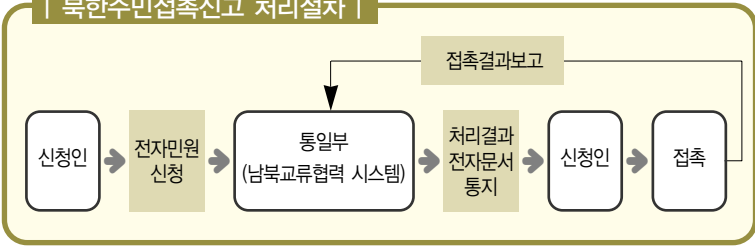
가. 북한주민접촉신고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 남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의 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뿐만 아니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 접촉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회합 또는 통신(전화, 우편, Fax, Telex, Internet 등) 혹은 제3자를 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북한주민접촉신고 처리절차



[신고방법 및 수리]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전자민원이 원칙이며, 해외에 나가 있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되며, 재외국민의 경우 종이문서로 통지된다.

신고서 처리기간은 보통 10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고서류 |

서류명	작성방법
① 북한주민접촉신청서 ② 신원진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작성
③ 회사소개서 ④ 대북사업계획서 ⑤ 북측회사 소개서 ⑥ 중개상사 소개서 ⑦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⑥은 한글파일 작성후 업로드 - ⑦, ⑧은 스캔받아 파일작성후 업로드

[신고서류 작성]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서 신고인 인적사항에는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에는 신고인이 접촉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중국 등의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관계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모를 경우에는 북한의 회사명 정도만 기록해도 무방하다.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양식에 있는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입력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은 사진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또한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대표하여 1인만 접촉신고서를 작성하되, 인적사항은 나머지 대상자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접촉결과보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후에는 접촉결과를 통일부에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게시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유효기간 및 연장신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다만, 재북가족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고유효기간 중에는 수리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접촉기간 연장신고는 신고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연장 신고는 접촉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비록 신고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의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사후 신고]

부득이하게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항]

알아두기 6 사후 신고

- 북한 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 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 주민과 회합한 사람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
-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
-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

사후 신고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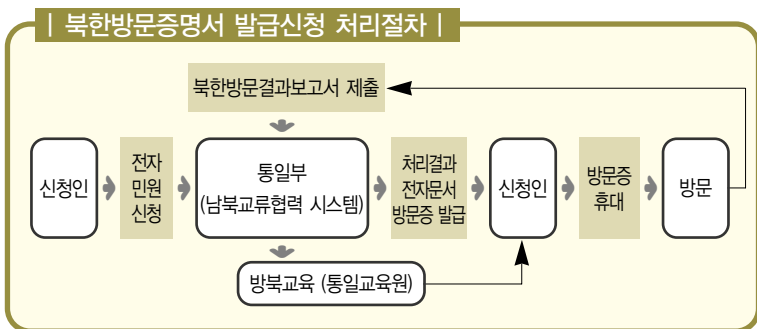
나. 북한방문신청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관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라도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 주민 및 재외국민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전자민원신청이 원칙이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에 의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할 경우 방문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북한방문증명서의 신청이나 수령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때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작성한다.

인적사항은 북한주민접촉신고 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방북계획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방북목적, 접촉인사, 추진사업 내용, 일정별 협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육로(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방문증명서 발급승인 이후 출입통행계획서를 반드시 방북 2일(48시간)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류 |

서류명	작성방법
①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② 인적사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작성
③ 방북계획서 ④ 초청장 -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해당자에 한함	- ③은 한글파일로 작성후 업로드 - ④은 스캔본 파일 작성후 업로드 (원본은 직접제출)

[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문기간 중에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북한방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방문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수시방북제도

1988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방북이 가능한 수시방북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자는 방북할 때마다 수시북한방문신고서와 북한당국의 초청장 내지는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5항]

※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재외국민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방북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 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알아두기 7 기념품 사기

방북 시 사 올 만한 기념품으로는 술과 각종 공예품이 있다. 북한 술을 사 올 경우에는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술병을 세워서 직접 들고 오는 편이 좋다. 마개 포장이 완벽하지 못하여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예품은 만수대창작사나 수출외화상점 및 호텔 기념품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림, 수예, 도자기, 조각품(돌, 나무), 판화 등이 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며, 같은 크기의 제품도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기념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출국 시 세관에서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도 간혹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술품, 도자기, 공예작품, 우표, 화폐, 엽서, 연하장 등은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이다. 또한 방북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흠이나 돌 등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품목도 반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방북 경로

방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과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출·입경 수속 양식은 국제선 입출국 수속 서류와 비슷하나 양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므로 제공받은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출입 수속이 완료되면 심사원이 방북증명서에 출경 혹은 입경 도장을 날인한다.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육로, 해로, 항공로를 이용하여 남북간 직접 왕래의 통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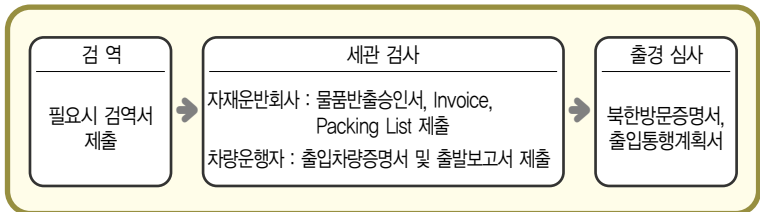
① 육로 방북

육로를 통해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북증명서를 휴대하고 남북출입사무소(CIQ) 등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남북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남측 출경 절차]

○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

출발예정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경의선 출입사무소나 동해선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한다.



○ 출입사무소에서 북측지역까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까지는 남측 군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부터는 북측 군부가 안내를 담당한다.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기 전 북측 세관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1차 확인을 실시한다. 이 때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탑승자는 하차하여 별도의 검사를 받게 된다.

[북측 입경 절차]

○ 출입 심사

방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상 없으면 방북증명서를 받아 수하물 심사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출입국 심사 시 초청기관이나 방문 목적, 성과 등을 물어 볼 때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된다.



• 경의선 출입사무소

○ 수하물 심사

수하물은 X-ray 검사대를 통과하며 검사를 받게 되는데, 북측 세관원이 수하물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 개봉을 요구하면 당황하지 말고 수하물을 열고 보여주면 된다.



• 동해선 출입사무소

[북측 출경 절차]

북측에 통보한 귀환시간에 맞추어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입 및 세관 심사를 받는다. 이용차량(운전자 제외)에서 내려 개인 휴대품을 소지하고 세관 및 출입 심사를 받으며 인원명단 확인은 북측에 통보된 출입계획서에 의하여 진행된다. 세관 및 출입 심사를 마치면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에 맞춰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

[남측 입경 절차]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휴대품신고서, 검역신고서를 제출하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X-ray 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받는다. 북한에서 동·식물을 가져왔을 때에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 차량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절차로 <수송차량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송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5일 전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go.kr>)에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증명서>는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입력 시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된다.

구 분	수송장비운행승인서	통행차량증명서
필요서류	· 운행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발급기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역지원과	관세청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연락처	02-2100-5821~8	02-3438-1142

통관 시 북측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금지(제한) 품목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카메라(160mm 이상) 등을 소지하고 입경하였을 경우에는 북측 CIQ에 맡기고 귀환 시 찾아 나오면 된다. 이때 보관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출입금지 및 제한 품목]

구분	남한 규정	북한 규정
반입 금지	-국가안보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음반 등 -화폐 유통권 등의 위조품 모조품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류	-모든 종류의 무기류, 군수품, 탄약류, 폭발성 물질 -독극물, 마약류, 마취류 -오디오, 비디오류, 문화유물
반출 금지	-반입금지물품 -기밀누설 또는 첩보에 쓰이는 물품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보호문화재 등	
반출·입 제한	-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검역대상물품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 규제품목 -기타 성질상 여행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출판물, 사진 및 필름 -고가의 금속(금), 보석류 -트랜지스터 라디오, 녹음기, 테이프·CD 등 저장장치 -인삼 및 각종 종자류 -기타 : 카메라(160mm), 캠코더, 휴대전화, 차량GPS장비, 쌍안경·망원경 (10배 이상) 등

② 직항로 방북

남한은 인천·서울(성남)·김포·오산·제주·김해(부산)·양양공항을, 북한은 평양·선덕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남측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출경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일반적인 국제선 출국 수속 절차를 거치면 된다.

평양공항에 도착하면 기내 출입문을 나오면서 북측 안내원으로부터 간단하게 명단 확인을 받고 공항 수속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③ 해로 방북

해로는 주로 정부 차원에서 식량, 비료 등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남측 인도인원들이 방북하는 경우 이용되고 있다. 남한은 주로 인천항·동해항·속초항·평택항·부산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아두기 8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6개도 9시 89군 810읍·면이었으나 이후 면을 폐지하여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직할시는 구역, 군으로, 도는 시와 군(구역, 구, 지구)으로 나뉜다. 2007년 현재 북한은 2직할시(평양·나선), 9도, 25시, 147군, 267노동자구로 구성 되어 있다.

-노동자구는 광산, 임·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행정구역이다.

직할시(2)	평양직할시(19구역 4군), 나선직할시	
도(9)· 시(25)	평안남도(5시 2구역 1구 2지구 19군)	평성시, 개천시, 덕천시, 순천시, 안주시
	평안북도(3시 22군)	신의주시, 정주시, 구성시
	자강도(3시 15군)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양강도(1시 11군)	해산시
	황해남도(1시 19군)	해주시
	황해북도(3시 15군)	개성시, 사리원시, 송림시
	강원도(2시 15군)	원산시, 문천시
	함경남도(4시 1구 1지구 15군)	함흥시, 단천시, 신포시, 흥남시
함경북도(3시 12군)	청진시(7구역), 김책시, 회령시	
특구(3)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신의주특별행정지구	

북한은 남포·해주·흥남·원산·청진·송림항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해로를 통해 방북할 경우에는 방북증명서를 휴대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출입 수속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항 당일 무역대리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과 관련한 수속을 받는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신청서와 방북증명서이다. 출국 수속이 끝나면 세관으로 이동하여 세관에서 세관 검사를 거친 후 선박에 승선한다.

선박에 승선한 이후 선장과 침실, 식사, 일정 계획 등 제기되는 사안들을 협의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선의 경우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국적선이 아닌 외국 국적선을 이용할 경우 식사가 우리와 달라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보통 외국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남한 선장 등이 동승한다.

북한 항구에 입항하기 전 수로안내지점(Pilot Station)에 도착하면 북측 해안통행검문소 직원과 도선사, 검역관 등이 승선하여 항구까지 안내와 검역을 하게 된다. 이때 북측이 운항장비·통신장비·카메라·휴대전화 등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중 운항장비, 통신장비는 북측항에 도착하여 선박의 안전 확인과 국제전화 시험 통화 후 봉인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카메라의 경우에는 인도, 인수, 하역 등의 장면을 촬영하도록 남북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나 항구는 군사지역이므로 사진촬영 등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북측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북측 해안통행검사소 직원, 세관원, 무역대리점 직원 등이 승선하여 방북 절차를 진행한다. 인도인원의 경우 방북증명서, 선원은 선원수첩을 제시한다.

방북 수속이 완료되면 북측의 인수인원이 배에 승선하고 선상인도 합의에 따라 상호 위임장을 교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하역작업을 시행한다. 서류 절차가 끝나면 북측과의 만찬, 인도, 인수, 하역 등을 위하여 북측의 인수인원과 같이 하선하게 된다.

귀환할 때에는 북측지역에서 출발하기 전 인도인원들의 방북증명서, 선원수첩 등을 확인하고 우리측 선원 전원탑승 여부, 우리측 인원 외 무단승선자 유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출항해야 한다.

알아두기 9 북한에는 어떤 술이 있을까?

북한에는 민속술이 많다. 평양백로주는 소주 종류인데, 도수가 매우 높다. 남한에서도 조선식료무역회사가 만든 평양소주가 대량 수입되어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팔린 적이 있다.

맥주에는 룡성맥주와 금강맥주, 봉학맥주, 대동강맥주 등이 있다. 룡성맥주는 색깔이 진하고 맛이 달짝지근한 편이다. 630mm들이 병맥주가 인기가 높고, 금강맥주는 350mm들이 캔으로도 판다. 북한은 맥주와 술을 따로 구분할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긴다. 남한의 백화점 등지에서도 볼 수 있는 북한의 오가피술이나 강계포도술 등은 40도 남짓 되는데 북한의 술 중에는 60도가 넘는 것도 있다.

개성인삼술나 백두산들쪽술도 널리 알려진 술이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 밀림일대에서 많이 나는 들쪽으로 빚은 들쪽술은 손님맛이 술로 인기가 높다. 들쪽은 북한 지역에서 주로 나는 빨간 열매인데 특히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의 특산품이다. 들쪽술은 15도, 25도, 40도짜리의 세 종류가 있다. 외국인들은 대개 15도짜리를 즐겨 마시는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인이 이 들쪽술을 맛보고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고 감탄하자 김일성이 12상자를 선물했다는 일화도 있다.



• 강계포도술



• 강계술



• 아비발효술



• 대동강소주



• 들쪽술



• 평양술



• 인삼술



• 고려인삼술



• 각종 소주

다. 제3국(중국) 경유 방북 | | | | | | | | | | | | | | | | | |

① 방북 비자 받기

남북 당국간 합의나 직항로 등을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비자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3국을 통해 방북할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인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우 베이징이나 선양(심양)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

고려항공은 화·목·토요일에, 중국남방항공은 월·수·금요일에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다. 화요일과 토요일은 연계항공이 없으므로 방북 전날인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베이징에 도착하여 베이징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방북일정에 무리가 없다.

선양에서 출발하여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방북할 수도 있다. 선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는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되고 있다. 비자는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비행기를 탈 경우 선양발 평양행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시간을 이용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측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선양을 통하여 방북 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1박 없이 당일 방북도 가능할 수 있다. 초행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시간 등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방북일 전날까지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비자신청을 할 경우 대표자가 일행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② 평양 항공권(비행기표) 구매

비자를 받은 후 고려항공 사무소에 들러 항공료를 지불하고 왕복 비행기표를 발급 받으면 된다.

| 북한 - 중국간 비행기 시간표 |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항공사(편명)	연계항공	비고
베이징	평양	화, 토	11:40	14:40	고려항공 JS152	*전날출국	현지 시간 기준
		목	14:15	17:00	고려항공 JS252	09:40 인천 → 10:40 베이징(CA138)	
						10:00 인천 → 10:45 베이징(OZ331)	
						10:40 인천 → 11:40 베이징(KE851)	
월, 수, 금	14:00	16:45	중국남방항공	09:40 인천 → 10:40 베이징(CA138)			
평양	베이징	화, 토	08:40	09:40	고려항공 JS151	12:10 베이징 → 14:50 인천(OZ332)	
						13:10 베이징 → 16:00 인천(KE852)	
						15:50 베이징 → 18:30 인천(OZ334)	
		목	10:30	11:30	고려항공 JS251	15:50 베이징 → 18:30 인천(OZ334)	
월, 수, 금	17:45	18:30	중국남방항공	18:45 베이징 → 21:25 인천(CA137)			
선양	평양	수, 토	15:00	17:10	고려항공 JS156	08:40 인천 → 09:20 선양(KE831)	
						12:45 인천 → 13:30 선양(KE5831)	
평양	선양	수, 토	12:30	12:40	고려항공 JS155	16:50 선양 → 19:35 인천(CZ671)	
						16:45 선양 → 19:30 인천(KE834)	
						16:50 선양 → 19:35 인천(CZ671)	

※ 이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예약부 등에 확인 필요

※ CA : 중국국제항공 CZ : 중국남방항공 JS : 고려항공 KE : 대한항공 OZ : 아시아나 항공

| 기타 노선 비행기 시간표 |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편명	비고
평양	방콕	목	10:20	14:20	JS153	현지시간 기준
방콕	평양	금	12:20	20:00	JS154	
평양	마카오	월	08:35	19:35	JS187	
마카오	평양	월	13:05	17:45	JS188	
평양	블라디보스톡	목	09:00	11:40	JS271	
블라디보스톡	평양	목	19:40	20:30	JS272	
평양	하바로프스크	월	09:40	14:00	JS253	
하바로프스크	평양	월	16:00	16:20	JS254	

* 이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예약부 등에 확인 필요

비행기는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북 일자가 확정되면 고려항공 중국사무소에 비행기표를 FAX 등으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고려항공에서는 방북 비자를 확인하고 비행기표 발권을 하기 때문에, 비자가 없을 경우 비행기표 발권은 어렵다. 때로는 평양으로 가는 출발일 아침에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사전에 고려항공에 통보하고, 평양행 비행기표는 베이징공항 3층에 있는 고려항공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고려항공 주요 연락처]

○ 본사(기본 사무소)

- 주 소 : 평양시 순안구역
- 전 화 : 850-2-381-8108

○ 발권사무소(비행기표 판매소)

-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
- 전 화 : 850-2-421-7681,
850-2-421-8181

○ 베이징 사무소

- 주 소 : 朝陽門北大街2號港澳中心
- 전 화 : 86-10-6501-1557,
86-10-6501-1559

○ 선양 사무소

- 주 소 : 七寶山賓館
- 전 화 : 86-24-2325-1922

③ 중국 출국 수속

중국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탑승객, 화물 등이 많아서 수속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항에 여유 있게

알아두기 10 북한에는 어떤 담배가 있는가?

당이나 정부의 간부에게 지급되는 고급담배로는 <금강산>, <서리꽃>, <아리랑>, <칠보산>, <평양>, <호랑이> 등이 있다. 이 담배들은 대성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고려호텔 등지에서 판매된다. 평양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 중간급 담배로는 <대극장>, <대동문>, <휘파람새> 등이 있다. 일반 주민들은 <해당화>, <갈매기>, <제비> 등을 주로 피운다. 그 보다 못한 사람들은 <말아초>를 피운다. 직장인은 필터가 없는 <해당화>를 한 달에 다섯 갑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군에선 하루에 <용광로>를 10개비씩 지급한다. 어느 쪽이든 애연가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인삼>, <홍란>, <홍초>, <만수대> 등 여과담배는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도 호텔이나 외화상점에서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가장 애용하는 수입 담배는 「던힐」이다. 북한의 담배는 매우 독하다. 북한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금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최근에 나온 북한담배

도착하는 것이 좋다. 고려항공 카운터에서 짐표(화물표)와 비행기표를 받은 후, 화물을 탁송하고 지정된 탑승구로 이동하여 비행기에 오르면 된다.

평양에서 세관 검사 시 중국 공항에서 받은 짐표와 수하물에 붙어 있는 짐표를 확인하므로 짐표는 잘 소지하여야 한다.

화물을 보낼 경우 불필요한 부착물 등은 우선적으로 화물 검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기내에 탑승하기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한다.



• 고려항공기

[면세점의 이용]

방북 시 지참할 선물이나 기타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 건전지, 필름 등을 구입한다. 단, 남북간의 직항로를 통하여 방북할 경우에는 국내 공항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입국 시 술과 담배, 선물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탁송화물 무게]

무료로 탁송할 수 있는 비행기 수하물은 공무석의 경우 40kg, 일반석의 경우 30kg이다. 무게를 초과할 경우 초과 요금을 내야 한다.

④ 평양행 항공편 이용

[노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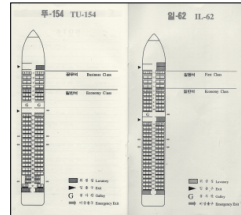
제3국을 거쳐 방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 베이징 - 평양노선 혹은 선양 - 평양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북한의 국제선은 평양 외곽에 있는 평양공항(순안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 평양공항에는 고려항공이 베이징(주3회), 선양(주2회), 방콕(주1회), 마카오(주1회), 블라디보스톡(주1회) 등에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남방항공도 주3회 베이징-평양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기내 서비스]

- 좌석 배치 : 비행기의 표는 일반자리표(일반석, Economy Class)와 공무자리표(비즈니스석, Business or Prestige Class)로 구분되어 있다. 공무석은 비행기 앞부분에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두 자리씩 배열되어 있으며, 일반석은 공무석 뒤로부터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세 자리씩 배열되어 있다. 좌석은 승무원의 안내를 받거나 통로 천장에 붙여진 번호표를 보고 찾아가면 된다.
- 기내 식사 : 자리에 앉으면 물수건과 음료수 및 사탕 등의 기내서비스와 기내 식사가 제공된다. 음료는 맥주(룡성 맥주), 물(신덕샘물), 탄산음료(룡성 사이다), 기타 음료(배 단물, 딸기 단물 등) 등이 제공된다. 기내식사는 밥과 닭고기, 빵, 버터, 과일 등이 제공된다. 공무석의 경우는 좀 더 풍부한 식사와 후식이 제공된다.



• 고려항공 안내도



• 고려항공 기내

- 기내 면세품 : 고려항공 기내에서는 면세품을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평양에 들어 갈 때는 판매하지 않고 평양에서 나올 때 술, 담배, 복주머니, 수예품 등의 면세품을 판매한다.
- 기내 방송 : 일반적으로 이착륙 전후, 기내식사 제공, 국경선 통과 시 안내 방송이 나온다. 북한말과 영어로 기내 방송을 한다. 용어는 남쪽과 조금 다르다.

[기내 활동]

- 비행기 안에서는 북한 영공 촬영 등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기내에서 제공하는 노동신문, 잡지 등을 기내식 밑에 깔고 식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노동신문, 조선, 금수강산, 청년문학 등의 잡지를 무료로 배포한다.
- 기내에서 입국 수속을 위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승무원이 배포하며, 비행기 착륙 전에 작성하면 도착 시 공항에서 수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기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승무원에게 요청한다.

※ 북한의 기내 용어

- | | |
|---|--------------------|
| • 이코노믹(Economic Class) : 일반자리표 | • 프림 : 우유가루 |
| • 비즈니스(Business or Prestige Class) :
공무자리표 | • 쥬스 : 단물 |
| • 설탕 : 사탕가루 | • 화장실 : 위생실 |
| | • 안전벨트 : 박띠 또는 안전띠 |

⑤ 평양공항 수속 절차

[공항 내 이동]

- 평양공항에 착륙하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건강신고서를 복측 의료진에게 제출하고 내린다.



• 평양공항

- 비행기에서 내린 후 대기하고 있는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평양공항 청사 앞으로 이동한다.



• 공항버스

- 공항버스에서 내리면 평양공항 청사 앞으로 입국 수속 전에 복측 안내원들이 마중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안내원들이 입국 수속 장소까지 안내한다. 안내원들이 없을 경우 입국 수속 장소로 이동하여 수속을 한다.
- 입국 수속 시 별도청사의 귀빈실(2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분리하여 일부는 귀빈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출입구(1층)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 수속]

- 기내에서 미리 받거나 출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국수속표'를 정자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여권, 비자와 함께 제출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권과 비자를 받고 통과한다.

[세관 수속]

- 귀빈실에서 입국 수속을 한 대표단의 경우 비행기에 들고 탄 손짐은 귀빈실 수속대 앞의 X-ray대에서 세관 검사를 받는다. 이때 여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신고서

이름 홍길동 성별 남 나이 45
 국적 대한민국 려권번호 NY 300000 려행목적 사업협의
 거주지 서울 방문지 평양
 대표단명 (주)하나상사 대표단 직장직위 (주)하나상사 부장
 따로 다른사람의
 손에든짐 1짝 10kg, 부친짐 1짝 30kg, 위탁 짐 짝 kg
 주의 사항
 1. 려행자들이 몸에 휴대한 것, 손에든짐, 따로부친짐, 다른 사람의 위탁짐속에 있는 무기, 탄약, 폭발물, 폭약, 마약, 출판선전물을 비롯한 모든 물품들과 국내의 화폐는 의무적으로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홍길동
 신고날자 주체 95년 6월 14일 신고인수표

(세관신고서)

휴대품 목록

품명	단위	수량	품명	단위	수량
카메라	대	1			
비디오카메라	대	1			
필름	봉	2			
비디오테이프	개	5			
노트북 PC	대	1			
디스켓	개	10			
옷	벌	3			
술	병	2			
담배	보루	3			
참고용자료	권	2			

화폐명세

화폐명	금액	화폐명	금액
미화	5,000달러		
인민폐	1,000원		

검사기록

세관 세관원 수표

입 / 출국수속표

ENTRY/EXIT CARD

정자로 쓸 것
 FILL IN CLEARLY
 IN ROME ALPHABET

통행검사소
 IMMIGRATION CONTROL OFFICE

이름 홍길동 (남)녀
 Name in full 홍길동 Sex M/F
 년 1963.6.15 국적 대한민국
 Date of birth 1963.6.15 Citizenship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 동반자 10명
 Nationality 한민족 Accompanied by 10명
 려권종류와번호 NY 300000
 Passport Type D/S/O/ No. NY 300000
 직장직위, 거주지 (주)하나상사, 부장
 Office of Position, address (주)하나상사, 부장
 대표단이름, 목적지 사업협의, 평양
 Name of delegation, Destination 사업협의, 평양
 초청기관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삼천리총회사
 Invited by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삼천리총회사
 체류지 평양 체류기간 6일
 Staying place 평양 Staying period 6일
 날짜 2006.6.14 수표 홍길동
 Date 2006.6.14 Signature 홍길동

(출입국신고서(입출국수속표))

‘세관신고서’를 검사원에게 주고 검사를 받으며,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중요한 물품들은 세관신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손짐 수와 화물로 부친 짐수를 기록하고 검사원이 확인할 경우 설명하면 된다.

알아두기 11 휴대품을 분실했을 때

* 휴대품 분실 시 대처요령은?

아무래도 객지에 나가 여행을 하다보면 마음과는 달리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강산 현지에서 분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능한 서둘러 관광조장이나 현지 직원에게 분실한 시간대와 장소를 알려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관광 마지막 날 오전에 관광객이 자신이 묵었던 숙소를 나오게 되면 숙소 관리직원들이 청소하면서 분실물을 찾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럴 경우 해당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북측 출입사무소로 보내져 남측으로 오기 전에 찾을 수 있다. 혹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찾지 못한 분실품은 모두 남측 현대아산 고성사무소로 보내져 관광객들의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 따라서 뒤늦게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현대아산 고성사무소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산행 중에 잃어버리거나 또는 언제 어디서 분실한 것인지 잘 모르는 휴대품은 찾을 가능성이 낮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현대아산 고성사무소 : Tel) 033-681-9400, 9401, 9402 Fax) 033-681-9403

* 관광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금강산관광에 있어 관광증은 일반 해외여행 시 신분증 증명할 수 있는 여권에 해당하므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훼손이나 분실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광조장에게 연락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에서 재발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수시로 관광조장들이 물어보기도 하므로 물에 젖었다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를 보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휴대전화는 따로 분리하여 세관원에게 보관시켜야 하며, 보관증(억류증)을 잘 소지하고 출국 시 휴대전화를 찾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로 부친 수하물은 1층 일반출입구 앞에 있는 '짐 찾는 곳'에서 찾는다. 2층 귀빈실을 이용한 경우 1층에 내려가 여권과 '세관신고서'만 갖고 짐을 찾으면 된다. 1층 '짐 찾는 곳'으로 들어갈 경우 2층 귀빈실에서 수속했음을 말한다. 2층에서 검사받은 손짐은 같은 일행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북측 안내원에게 맡기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하다.
- 세관 검사원이 수하물 내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개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하물을 열고 보여주면 된다.
- 대표단의 성격에 따라서는 북측 사업현장에서 사용할 기계(의료장비, 수리기계 등)나 공구 등을 수하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원에게 대표단의 방북 목적과 물건의 용도를 잘 설명하면 된다.
- 대표단 일행들은 개별적으로 보다는 함께 세관 수속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 대표단이 공항버스에서 내린 후 일반출입구(1층)를 이용하여 입국 수속과 세관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북측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다. 첫 만남인 경우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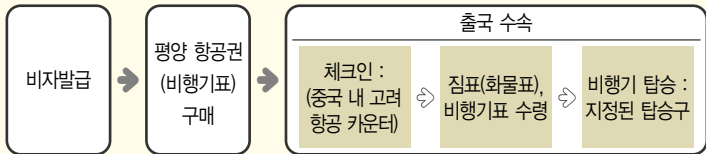
[귀국 수속]

- 출국을 위하여 평양공항에 도착하면 '출국수속표'와 '세관신고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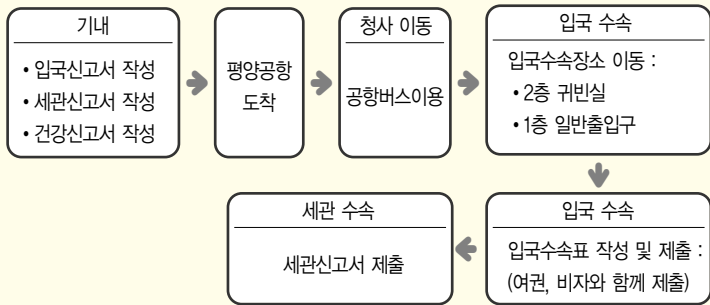
작성한다. 여권과 ‘세관신고서’를 수하물 검사원에게 제출하고, 탁송화물을 X-ray 검사대에 통과시킨다. 수하물 통과 시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면 개봉하여 보여줘야 한다. 때로 북한에서 구입한 기념품이나 예술품들에 대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수속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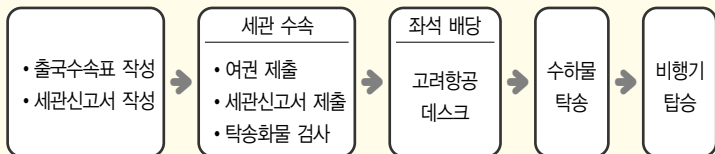
| 출국 시(중국 ⇄ 평양) |



| 입국 시(평양공항) |



| 귀국 시(평양 ⇄ 중국) |



- 수하물 통과 후 앞에 위치한 고려항공 데스크에서 비행기 좌석표를 받고, 수하물을 부친다.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같은 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베이징-인천간 항공권을 제시하면, 수하물을 바로 인천공항으로 탁송해 주므로 중국에서 짐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단, 베이징공항은 자동 환승체계가 아니어서 수하물이 하루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면 처리하여 준다.) 그러나 중국 선양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환송탁송이 안되는 점과 중국 선양공항에서 수하물 탁송 시 술병에 대한 제한(2병까지)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선양공항에서는 술병의 기내 휴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양공항의 발권카운터에서 휴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비행기 좌석표와 수하물 수속이 끝나면, 다시 여권과 '세관신고서'를 돌려 받고, 2층 출입구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국 수속 전에 '세관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손짐을 X-ray 통과대에서 검사받는다.

알아두기 12 귀국 시 면세허용 범위는?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 물품을 포함하여 연도별 4회, 1회당 전체 취득가격이 300\$ 상당액 이내인 물품은 면세된다.(단, 만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 주류 : 1병(1리터 이하)
- 담배 : 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g

- 향수 : 2온스
- 농산물(전체취득가격 총액이 100만원 이내)
참기름 · 참깨 · 꿀 · 고사리 · 덕덕 기타 : 5kg 이내, 잣 1kg 이내
- 한약재(전체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
- 인삼 : 300g 이내, 녹용 : 150g 이내, 기타 : 3kg 이내

- 비행기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출국 수속 전에 2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들며 대기할 수도 있다.
- 세관통과 후 출국 수속대에 여권, 비자, 출국수속표를 제시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이동한다. 비자는 출국 수속대에서 회수해 간다. 면세구역 이동 후 면세점(간이매대 1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공항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한 후 탑승하게 된다.

⑥ 기차편을 이용할 경우

중국에서 기차편을 이용해서 평양에 갈 수도 있다. 베이징에서 월·수·목·토요일 17시 25분에 평양행 열차가 출발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기차를 타고 방북하는대는 어려움이 있다.

베이징발 열차는 출발 다음날 18시 50분에 평양에 도착한다. 꼬박 하루하고 1시간 25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입국 수속은 국경도시 신의주나 기차 안에서 마치게 된다. 기차표 1매당 35kg의 수하물을 별도의 운임 없이 휴대할 수 있다. 기차표 없이 화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외무역수출권이 있는 회사에 위탁하여 발송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차 시간표 |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편명	비고
베이징	평양	화,목,금,일	17:25	18:50 (다음날도착)	단동, 신의주	
평양	베이징	월,화,수,토	10:10	09:23 (다음날도착)	"	
선양	평양	화,목,금,일	13:30	18:50	"	
평양	선양	월,수,목,토	10:10	23:12	"	
모스크바	평양	금	21:25	16:35(금)	신의주,압록강	7일 소요
		화,수,목	14:00	10:40 (목,금,토)	하산, 두만강	9일 소요
평양	모스크바	일,월	10:10	06:45(월,화)	신의주,만주리	8일 소요
		토	11:30	20:50(토)	두만강,하산	6일 소요

※ 이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시간은 현지 시간

4.

방북 시 유의 사항

가. 방북자의 기본자세 | | | | | | | | | | | | | | | | | | | |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각자의 사회구조와 의식, 사회 작동원리를 발전시켜 온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방북 전에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방북자는 남한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방북 시의 말과 행동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품위를 지켜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방북자는 방북 시 예의를 바르게 하고 사업 등 방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원칙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 방북 시 현지에서 불필요하거나 방북의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북측 안내원이나 초청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방북 목적 이외의 돌출 행동으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 북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용어나 어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 사람들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문이 있을 때는 안내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알아두기 13 남북한의 주요 생활용어 비교

북 측	남 측	북 측	남 측	북 측	남 측
가 가	가 게	동강옷	투피스	생동이	푼타기
가급금	보너스	동글파	양 파	소학교	초등학교
가두녀성	가정주부	뒤 셈	검 산	손전화	휴대전화
가마치	누룽지	따리난병	합병증	수표(하다)	서명(하다)
가슴띠	브래지어	딱친구	단짝 친구	외동옷	원피스
가시아버지 (가시아머니)	장인(장모)	떼레비통로	TV채널	원주필	볼 펜
각 전	거스름돈	띄창문(띄창)	환기창	위생실	화장실
게사니	거위	뜨락또로	트랙터	위생종이	화장지
결바다	연해	랭동고	냉장고	위생차	구급차
공민증	주민등록증	렌트겐선	엑스레이	인 차	이내, 곧
고려약	한 약	려과담배	필터담배	일없다	괜찮다
과일단물	주 스	료해하다	알 다	일떠서다	힘차게 일어나다
곽 밥	도시락	맞혼인	연애결혼	자료기지	데이터베이스
교 예	곡예(서커스)	매 대	판매대	주글살	주름살
꼬부랑 국수	라 면	머리비누	삼 푸	지은옷	기성복
꿀 신	슬리퍼	몰크림	스킨로션	직승비행기	헬리콥터
남 새	채 소	바다목	해협	직장세대	맞벌이 가정
능쟁이	명아주	방거두매	방 청소	찢개(건건이)	반 찬
다리매	각선미	보숭이	고 물	차단소	검문소
단고기	보신탕 (개고기, 개장)	부루	상추	차마당	주차장
단얼음	빙 수	부화사건	간통사건	창가림	커 트
도는 네거리	로타리	빨래집	세탁소	체화품	재고품
도레라	트레일러	사라구	썸버귀	풀거름	퇴 비
		사슬돈	잔 돈	필 갑	필 통
		살결물	스킨로션	후방가족	군인가족

※ 방북 시에 북한에서 노인을 흔히 ‘늬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용어이므로 방북자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북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 없습니다.’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 냉전시대에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한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거나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면서 편안한 마음 자세로 일상적인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

나. 방북기간 중 지키면 좋은 사항 | | | | | | | | | | | | | | | |

① 호칭 문제

방북 시에는 이름이나 직책 뒤에 일반적으로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무난하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호칭할 경우에는 국방위원장 등 객관적인 명칭으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과 남을 지칭할 때는 북측, 남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안내원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남북 교류 등을 위하여 방북을 하게 되면 북측 초청기관 담당자와 함께 통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내원이다. 안내원은 북한에 입국할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일행의 안내를 하게 된다.

안내원을 우리는 일반적인 관광안내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북한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안내원이라 하여 단순하게 안내를 담당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내원이 지금은 남측 인사를 위해 일정 협의 등 북한에서의 활동 편의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다른 남측 사업자의 업무 담당자일 경우도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안내원이 꼭 한사람만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방문 단체를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행동을 같이 한다. 한 사람이 방문을 하여도 두 사람의 안내원이 배정될 수 있다. 두 사람 중 한명의 안내원과 대화하기보다는 안내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안내원 사이에도 명확한 위계질서가 있어서 때로는 일정, 요청사항 등의 공식적인 필요 사항은 안내 책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들에게 방북 목적 외에 친척 상봉 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본래의 방북 목적과 다르므로 단체의 실무진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사업상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어디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안내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쪽의 일반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화에 임해야 한다.

③ 관람지에서

평양에 도착하면 북측에서 특별한 관람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평양 도착 첫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방문객을 태운 버스나 승용차는 거의 대부분 만수대언덕의 김일성동상을 들리게 된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금수산기념궁전 등을 방문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가능한 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가게 되더라도 참배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알아두기 14 안내원과의 대화는 이렇게 !

- 안내원을 호칭할 때는 안내 선생, OO선생 등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 가족생활에 대한 깊은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 대화 중에 가장 흔한 주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언제 결혼하였느냐?”, “아이가 몇 명이나?”,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등의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는 무방하나,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 OO은 있느냐?”, “한 달에 월급은 얼마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 등)
-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 등 사업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그런 방면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내원들이 방문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 보지 않고 같이 간 일행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업무적인 범위에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일을 잘 한다는 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학력이나 경력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이러한 대화는 사적인 자리나 술자리 등에서 오고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실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

④ 숙소에서

호텔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연락이나 대화 외의 불필요한 이야기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TV를 시청하거나 방에 혼자 있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

장시간 호텔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방 청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에 보관한다.

⑤ 식사나 술자리에서

만찬 시에는 주최측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놓는 경우가 자주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술은 알콜도수가 높으므로 자기의 주량을 감안하며 마셔야 술로 인해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술에 취하여 불필요한 언쟁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남한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의를 지키며, 방북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행 중 술이 약해서 취한 사람이 있으면 숙소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침잔을 하므로 술을 다 마시지 않아도 중간 중간에 술을 따라주는 경우가 있다.

⑥ 오락시설에서

호텔 바나 기타 시설에서 안내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어울리는 사적인 자리라도 정치적인 화제나 민감한 사안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 없이 방북자들만 어울릴 때에도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⑦ 상점·호텔 등에서 돈을 지불할 때

보통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계산소에서 값을 치루고 전표를 받아와 그 전표를 판매원에게 주고 물건을 받는다. 필요이상의 금액이 청구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영수증을 품목별로 달라고 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혹시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부드럽게 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숙박비용이나 호텔에서의 기타 비용은 보통 출국 전날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고 중간에 대략의 비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숙소에서의 요금 지불은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최종 계산을 확인하는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적다.

북한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빈 종이나 양식에 금액을 적고 상점이나 상호의 도장을 찍는다. 도장이 있어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출국 시 세관을 통과할 때 북측 세관원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은 잘 보관 해 둔다.

⑧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촬영 전에 안내원과 협의를 한다. 촬영을 하더라도 오해를 살만한 북한 주민이나 시설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방북 목적 이외의 건물을 촬영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군인이나 군사시설물은 촬영하지 않도록 한다.
- 방북 시 촬영한 필름은 현지에서 인화한다. 이때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은 사업상 필요성 등을 안내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필름의 삭제를 미리 막는 것이 좋다.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과 마찬가지로 북측 안내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다. 방북 시 비디오로 촬영한 경우 담당 안내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촬영과는 다르게 비디오 촬영은 연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⑨ 차안에서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안내원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리나 건물의 이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안내원들에게 문의하면 성의껏 설명해 준다.

차안에서는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마시거나 흡연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동 중에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일은 삼가도록 한다.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나 일반 북한 주민들을 촬영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15** 통일부 관련 부서 및 연락처

부서명		전화번호 (2100-)	주요업무내용
남북교류협력 기획과	교류협력 기획과	5810~5817	남북교류협력 정책 수립·추진, 남북협력기금 조성·운용
	교역지원과	5820~5828	교역 및 수송관련 주민접촉·왕래 승인, 물자 반출·반입, 민간 경제협력사업 승인 및 지원
	경협지원과	5830~5838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에너지·농업 기반·수자원 교류협력, 농림수산업·광업·제조업·관광(금강산)·금융보험 교류협력
	사회문화 지원과	5840~5847	사회교류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문화분야교류(문화·예술, 언론·출판, 교육·학술, 종교, 체육 등) 협력사업(자)·반출입 승인 등
인도협력 기획과	인도협력 기획과	5860~5868	국군포로·납북자 정책, 북한인권 문제 및 인도적 문제 관련 업무
	인도지원과	5870~5876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정책수립·시행
	이산가족과	5880~5886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 수립·종합 및 조정
	정책지원과	5890~589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개성공단사업 지원단	지원총괄팀	3783-7411~5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운영지원팀	3783-7437~8	개성공단사업중 보건위생 협력사업(자) 승인, 노무 관리
	투자지원팀	3783-744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 심사체계 관리,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 협력사업(자) 승인
	건설지원팀	3783-7451~5	개성공단 건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분양관련 지원, 기반시설 건설 관련 협력사업(자) 승인
	개발기획팀	3783-7416~9	개성공단 종합개발계획, 개발사업자 협력사업(자) 승인, 재원 지원 대책 수립, 개성공단시찰단 지원
	법제지원팀	3783-7435~6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정비계획, 법률·회계·세무 협력사업(자) 승인
통일교육 지원단	교육총괄과	9017-152~4	통일교육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교육운영과	9017-171~6	교육과정(사회, 공직자, 학교) 운영, 방북교육,
	연구개발과	9017-161~7	통일교육 교재·자료 개발·보급
남북교류협력 협업사무소	개성 001-8585-2100 서울 2100-5791	남북직거래 알선 및 상담,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 협의 및 연락	

Memo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Memo

A blank memo page with a light yellow background. The page features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in the center, which contains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word "Memo" is written in a gold, cursive font at the top left of the page.

Memo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ular area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with a solid line above and below each dashed line, creat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entire page has a light yellow background.

Memo

A blank memo page with a light yellow background. The page features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in the center, which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word "Memo" is written in a gold, cursive font at the top left of the page.

Memo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ular area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with a solid line above and below each dashed line, creat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entire page has a light yellow background.

북한방문 길라잡이

초 판 발 행 일 : 2006년 9월 27일

개정판발행일 : 2008년 4월 24일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디자인 및 인쇄 : 애드원 (전화 02-2272-7571)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북한방문 길라잡이는

북한방문 준비부터 귀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